

박어령 선생님 「올어바웃 PSAT 자료해석 기출총정리」
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5-03-25)

P.34 문제 25 <표 2> 내용 수정

<기존>

<표 2> 2015 ~ 2017년 영역별 만족도 점수

(단위: 점)

영역 \ 연도	2015	2016	2017
교과	3.60	3.41	3.45
비교과	3.73	3.50	3.56
교수활동	3.72	3.52	3.57
학생복지	3.39	3.27	3.31
교육환경 및 시설	3.66	3.48	3.56
교육지원	3.57	3.39	3.41

<수정>

<표 2> 2015 ~ 2017년 영역별 만족도 점수

(단위: 점)

영역 \ 연도	2015	2016	2017
교과	3.74	3.54	3.57
비교과	3.77	3.61	3.64
교수활동	3.89	3.82	3.81
학생복지	3.88	3.73	3.77
교육환경 및 시설	3.84	3.69	3.73
교육지원	3.78	3.63	3.66

P.41 문제 29 [문제 해설 Step 1] 내용 수정

<기존>

<표>의 빈칸은 선지에서 요구 시 채워나가자. <그림>의 각주는 배출량이 분모고 생산량이 분자이다. 따라서 **좌하향**할수록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높다

<수정>

<표>의 빈칸은 선지에서 요구 시 채워나가자. <그림>의 각주는 배출량이 분모고 생산량이 분자이다. 따라서 **우하향**할수록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높다.

P.43 문제 31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목표는 이동비용의 상대적 크기 비교이다. 이동비용에서 시간가치는 소요시간이 기본인데, 소요시간은 주행시간과 휴식시간을 합한 것이다. 일단 주행시간이 비어 있는 B와 C-국도 부분을 보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게 시간이므로 B는 5, C-국도에는 2가 들어간다. 따라서 소요시간은 A부터 C까지 3.0, 6.5, **4.0**이다(C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합해야 함). 1,500원을 곱해주는 것은 일단 생략하자.

연료비는 연료소비량을 먼저 도출해야 하는데, 시간을 구한 것처럼 거리에서 평균연비를 나누면 연료소비량이다. 따라서 A는 20, B는 20, C-국도는 8이므로 C전체는 15.5이다. 연료비에도 1,500을 동일하게 곱해주므로 위에서 구한 수치를 구간별로 더해 여기에 1,500을 곱해주면 된다.

$$A = 23 \times 1,500 + 8,000(\text{통행료})$$

$$B = 26.5 \times 1,500$$

$$C = \mathbf{19.5} \times 1,500 + 5,000(\text{통행료})$$

〈수정〉

목표는 이동비용의 상대적 크기 비교이다. 이동비용에서 시간가치는 소요시간이 기본인데, 소요시간은 주행시간과 휴식시간을 합한 것이다. 일단 주행시간이 비어 있는 B와 C-국도 부분을 보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게 시간이므로 B는 5, C-국도에는 2가 들어간다. 따라서 소요시간은 A부터 C까지 3.0, 6.5, **3.0**이다(C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합해야 함). 1,500원을 곱해주는 것은 일단 생략하자.

연료비는 연료소비량을 먼저 도출해야 하는데, 시간을 구한 것처럼 거리에서 평균연비를 나누면 연료소비량이다. 따라서 A는 20, B는 20, C-국도는 8이므로 C전체는 15.5이다. 연료비에도 1,500을 동일하게 곱해주므로 위에서 구한 수치를 구간별로 더해 여기에 1,500을 곱해주면 된다.

$$A = 23 \times 1,500 + 8,000(\text{통행료})$$

$$B = 26.5 \times 1,500$$

$$C = \mathbf{18.5} \times 1,500 + 5,000(\text{통행료})$$

P.93 문제 23 [문제 해설 Step 2] 오타 수정

〈기존〉

3문단 : 첫 번째 문장의 만족도 정보는 관련된 선지 자료가 없다. 두 번째 문장에서 2018년 청소년활동 정책 인지도 점수의 최소와 최대 가운데 최대 점수가 1.42가 **아지고** 1.44로 ㄹ의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다.

〈수정〉

3문단 : 첫 번째 문장의 만족도 정보는 관련된 선지 자료가 없다. 두 번째 문장에서 2018년 청소년활동 정책 인지도 점수의 최소와 최대 가운데 최대 점수가 1.42가 **아니고** 1.44로 ㄹ의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다.

P.103 문제 30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 ㉔. (×) 모든 항목에서 1점씩 더 득점하면 결국 항목별 가중치의 합에 1을 곱하는 것이 되므로 총점은 20점이 올라간다. ㄱ에서 정리한 순위상 **D**가 1위가 된다.

〈수정〉

- ㉔. (×) 모든 항목에서 1점씩 더 득점하면 결국 항목별 가중치의 합에 1을 곱하는 것이 되므로 총점은 20점이 올라간다. ㄱ에서 정리한 순위상 **C**가 1위가 된다.

P.120 문제 02 〈보기〉를 〈정보〉로 수정

<정 보>

○ 각 팀의 예보날씨와 실제 관측날씨 분류표

관측날씨		
예보날씨		
	H	F
	M	C

※ H, F, M, C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빈도를 뜻하며, 예를 들어 ‘가’팀의 H는 3임.

○ 정확도 = $\frac{H+C}{H+F+M+C}$

○ 임계성공지수 = $\frac{H}{H+F+M}$

P.127 문제 06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 ① (×) 승/무/패별로 3점/1점/0점인 체계이다. 따라서 승리한 횟수를 구하려면 직전 경기에 비해 누적승점이 3점 추가된 날을 찾아야 한다. A를 보면, 9일에 3점이므로 9일에 승리했고, 이런 식으로 3점이 추가된 날을 찾으면 더 이상은 없어서 A가 승리한 횟수는 **1회**이다. C팀은 14일, 28일, 30일로 3회이다.

〈수정〉

- ① (×) 승/무/패별로 3점/1점/0점인 체계이다. 따라서 승리한 횟수를 구하려면 직전 경기에 비해 누적승점이 3점 추가된 날을 찾아야 한다. A를 보면, 9일에 3점이므로 9일에 승리했고, 이런 식으로 3점이 추가된 날을 찾으면 더 이상은 없어서 A가 승리한 횟수는 **2회**이다. C팀은 14일, 28일, 30일로 3회이다.

P.129 문제 09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추가

〈기존〉

- ㄱ. (×) 2014년은 부동산이 기타 재산의 4배 이상임이 눈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2015년 이후부터인데, 선지의 진술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기타 재산을 4배한 값과 기타 재산을 합한 것, 즉 기타 재산의 5배가 전체 건수보다 더 적어야 한다(‘이상’이라 하였으므로). 아니면 기타가 전체의 1/5(2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봐도 된다. 어쨌거나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해도 전체 압류건수가 기타 재산 압류건수의 5배에 못 미친다.

〈수정〉

- ㄱ. (×) 2014년은 부동산이 기타 재산의 4배 이상임이 눈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2015년 이후부터인데, 선지의 진술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기타 재산을 4배한 값과 기타 재산을 합한 것, 즉 기타 재산의 5배가 전체 건수보다 더 적어야 한다(‘이상’이라 하였으므로). 아니면 기타가 전체의 1/5(2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봐도 된다. 어쨌거나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만 해도 전체 압류건수가 기타 재산 압류건수의 5배에 못 미친다.

P.133 문제 12 [문제 해설 Step 2] 정답 수정

〈기존〉

- ㄱ. (×) 실제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선지가 아님을 빨리 파악하자. 변경되는 것은 보상 배율이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정답 | ④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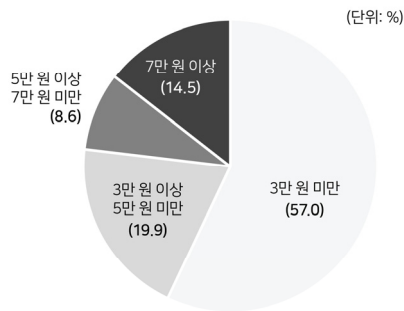
- ㄱ. (○) 실제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선지가 아님을 빨리 파악하자. 변경되는 것은 보상 배율이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정답 | ⑤

P.155 문제 25 <보기> 오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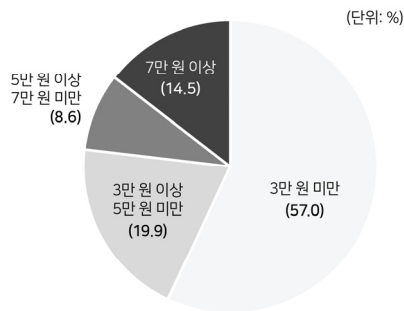
<기존>

ㄷ. 2017년 입장권 가격대별 관객수 구성비



<수정>

ㄷ. 2017년 입장권 가격대별 관객수 구성비



P.160 문제 30 <표>의 내용 추가

<표> 토지피복 분류 결과

(단위: 개소)

B기관									
A 기 관	대분류		농업지역		산림지역			수체 지역	소계
		세부 분류	논	밭	침엽 수림	활엽 수림	혼합림	하천	
	농업지 역	논	840	25	30	55	45	35	1,030
		밭	50	315	20	30	30	15	460
	산림지 역	침엽 수림	85	50	5,230	370	750	20	6,505
		활엽 수림	70	25	125	3,680	250	25	4,175
		혼합림	40	30	120	420	4,160	20	4,790
	수체지 역	하천	10	15	0	15	20	281	341
	소계		1,095	460	5,525	4,570	5,255	396	17,301

P.178 문제 02 <표>의 내용 추가

<기준>

<표> 2020년 가구당 보험료 및 보험급여 현황

(단위: 원)

구분 보험료 분위	보험료	전체질환 보험급여 (보험혜택 비율)	4대 질환별 보험급여 (보험혜택 비율)		
			A 질환	B 질환	C 질환
전체	99,934	168,725 (1.7)	337,505 (3.4)	750,101 (7.5)	729,544 (7.3)
1분위	25,366	128,431 (5.1)	327,223 (12.9)	726,724 (28.6)	729,830 (28.8)
5분위	231,293	248,741 (1.1)	322,072 (1.4)	750,167 (3.2)	713,160 (3.1)

<수정>

<표> 2020년 가구당 보험료 및 보험급여 현황

(단위: 원)

구분 보험료 분위	보험료	전체질환 보험급여 (보험혜택 비율)	4대 질환별 보험급여 (보험혜택 비율)			
			A 질환	B 질환	C 질환	D 질환
전체	99,934	168,725 (1.7)	337,505 (3.4)	750,101 (7.5)	729,544 (7.3)	390,637 (3.9)
1분위	25,366	128,431 (5.1)	327,223 (12.9)	726,724 (28.6)	729,830 (28.8)	424,764 (16.7)
5분위	231,293	248,741 (1.1)	322,072 (1.4)	750,167 (3.2)	713,160 (3.1)	377,568 (1.6)

P.181 문제 03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준>

- ① (×) <표 1>에 제시된 연도별 전체 재정지출액에 <표2>의 각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을 곱해 판단한다. <표2>부터 살펴보면 환경 분야는 2018년만 2.4% 비중이었고 나머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모두 2.4%이다. 그런데 <표1>을 보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전체 재정지출 금액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7년은 전년 대비 환경 분야 재정지출 금액이 감소하였다.

<수정>

- ① (×) <표 1>에 제시된 연도별 전체 재정지출액에 <표2>의 각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을 곱해 판단한다. <표2>부터 살펴보면 환경 분야는 2018년만 2.5% 비중이었고 나머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모두 2.4%이다. 그런데 <표1>을 보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전체 재정지출 금액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7년은 전년 대비 환경 분야 재정지출 금액이 감소하였다.

P.188 문제 10 <보기>를 <조건>으로 수정

<조 건>

- 에너지 섭취량은 탄수화물 1g당 4kcal, 단백질 1g당 4kcal, 지방 1g당 9kcal이다.
-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만 섭취하며, 섭취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없다.
- <에너지 섭취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남성과 여성은 1명씩 존재한다.

P.199 문제 16 정답 수정

<기준>

정답 | ④

<수정>

정답 | ⑤

P.208 문제 23 <표 1>의 제목 수정

<표> 연도별 A~C국 조세 부담률

(단위: 개사, 편)

연도	구분	국가	A	B	C
2014	국세		24.1	16.4	11.4
	지방세		1.6	5.9	11.3
2015	국세		24.4	15.1	11.3
	지방세		1.6	6.0	11.6
2016	국세		24.8	15.1	11.2
	지방세		1.6	6.1	12.1
2017	국세		25.0	15.9	11.1
	지방세		1.6	6.2	12.0
2018	국세		25.0	15.6	11.4
	지방세		1.6	6.2	12.5

※ 1) 조세부담률 = 국세부담률 + 지방세부담률

$$2) \text{국세(지방세)부담률}(\%) = \frac{\text{국세(지방세) 납부액}}{\text{GDP}} \times 100$$

P.233 문제 37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 ㄴ. (○) <표1>을 보자. 전체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가정불화’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각 연도별 가정불화 수치의 10배가 전체 인원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으로 봐도 각 연도의 전체 인원 수가 2015년은 9300, 2016년은 8550, 2017년은 8470, 2018년은 6230, 2019년은 4640명에 못 미친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수정〉

- ㄴ. (○) <표1>을 보자. 전체 보호조치 아동 중 발생원인이 ‘가정불화’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각 연도별 전체 인원의 수가 가정불화 수치를 10배 한 것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으로 봐도 각 연도의 전체 인원 수가 2015년은 9300, 2016년은 8550, 2017년은 8470, 2018년은 6230, 2019년은 4640명에 못 미친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P.235 문제 38번 [문제 해설 Step 2] 오타 수정

〈기존〉

- ⑤ (×) 과학교사 집단에서는 협업능력을 제외하고 경제적 소양, **리디십**, 문화적 소양이고 인문교사 집단에서는 경제적 소양, 리더십, 적응력이다. 협업능력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어긋난다.

〈수정〉

- ⑤ (×) 과학교사 집단에서는 협업능력을 제외하고 경제적 소양, **리더십**, 문화적 소양이고 인문교사 집단에서는 경제적 소양, 리더십, 적응력이다. 협업능력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어긋난다.

P.237 문제 39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 ㄴ. (○) **ㄴ**에서도 본 것처럼 기본 제작비용이 가장 작은 게 ‘을’이므로 ‘을’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을’의 제작비용은 7,500만 원이고 배송비용은 **ㄱ**에서 도출한 갑 기업과 비교했을 때 몇십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요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기업이 적어도 하나 있다.

〈수정〉

- ㄴ. (○) **ㄱ**에서도 본 것처럼 기본 제작비용이 가장 작은 게 ‘을’이므로 ‘을’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을’의 제작비용은 7,500만 원이고 배송비용은 **ㄱ**에서 도출한 갑 기업과 비교했을 때 몇십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요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기업이 적어도 하나 있다.

P.244 문제 04 내용 추가

다음 <표>는 ‘갑’국 국제청의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2017~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 원
2017	2,093	1,679	409	74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53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8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text{※ 미완료율(\%)} = \frac{\text{처리미완료건수}}{\text{처리대상건수}} \times 100$$

P.281 문제 30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 ③ (○) 2012년 대비 2017년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빈칸으로 주어진 브라질과 파키스탄을 일단 제외하면 러시아, 이란, 멕시코, 호주, 스페인이다. 이들 5개국은 2012년에 비해 2017년 GDP가 감소하였다. 이제 브라질과 파키스탄을 보면, 브라질의 GDP 대비 비율은 2012년이 2017년보다 높다는 것을 눈으로도 알 수 있으며, GDP 역시 2012년이 더 크므로 선지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을 보면 GDP 대비 비율이 2017년은 69/304이고 2012년은 53/224인데 증가율 비교법에 따라 처리하면 53/224가 더 크므로 파키스탄은 애초에 선지의 진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

- ③ (○) 2012년 대비 2017년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빈칸으로 주어진 브라질과 파키스탄을 일단 제외하면 러시아, 이란, 멕시코, 호주, 스페인이다. 이들 5개국은 2012년에 비해 2017년 GDP가 감소하였다. 이제 브라질과 파키스탄을 보면, 브라질의 GDP 대비 비율은 2017년이 2012년보다 높다는 것을 눈으로도 알 수 있으며, GDP 역시 2012년이 더 크므로 선지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을 보면 GDP 대비 비율이 2017년은 69/304이고 2012년은 53/224인데 증가율 비교법에 따라 처리하면 53/224가 더 크므로 파키스탄은 애초에 선지의 진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294 문제 39 내용 추가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8월 15일과 8월 16일 경기의 승패 결과가 동일한 팀은 5개이다.
 ㄴ. 8월 16일 기준 7위 팀은 H이다.
 ㄷ. 8월 16일 기준 승차가 음수인 팀이 있다.
 ㄹ. 8월 16일 기준 4위 팀 승차와 5위 팀 승차는 동일하다.

P.295 문제 38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 ④ (×) ④의 접근 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먼저 I팀부터 보면, I팀의 최근 연속 승패 기록은 2승이므로 I팀의 8월 13일 전적은 15일에서 2승을 빼면 된다. (...)

〈수정〉

- ④ (×) ③의 접근 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먼저 I팀부터 보면, I팀의 최근 연속 승패 기록은 2승이므로 I팀의 8월 13일 전적은 15일에서 2승을 빼면 된다. (...)

P.323 문제 17 [문제 해설 Step 1, Step 2] 오타 수정

〈수정〉

Step 1 문제 해결의 출발점

매칭형 문제인데, 앞선 16번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표>에 빈칸이 훨씬 많은 편이고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각주(공식)도 없다. 따라서 빈칸은 그대로 두고 <그림>에 대해 먼저 해석을 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p 2 자료 분석

<그림>에서 ‘가스전기’ 산업은 이미 매칭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림>은 1925년과 1940년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표>에서 1925년 대비 1934년의 공장 수 증감을 바탕으로 1925년의 산업별 공장 수를 역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그 결과 금속기계 산업은 538, 목제품 산업은 193이고 나머지 방직과 화학 산업은 1934년의 공장 수를 알 수 없으므로 1925년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P.339 문제 27 [문제 해설 Step 2] 오타 수정

〈기존〉

- ㄷ. (○) 위의 두 선지에 비해 진술 내용에 대한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선, 인가차량 대수 상위 4개 회사란 <표 2>에서 대수 구간이 201대 이상인 4개 회사를 의미한다. (...)

〈수정〉

- ㄷ. (○) 위의 두 선지에 비해 진술 내용에 대한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선, 인가차량 대수 상위 4개 회사란 <표 2>에서 대수 구간이 201대 이상인 4개 회사를 의미한다. (...)

P.356 문제 40 내용 수정

〈기존〉

〈정 보〉

- A는 전체 가구수 대비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비율이 92.9%이다.
- 지역별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대비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지급 가구수 비율은 H가 84.6%로 가장 높고, C가 62.4%로 가장 낮다.
- D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대비 상품권 방식의 지급 가구수 비율이 21.5%이다.
- E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의 평균 지원금이 65만 원이다.

〈수정〉

〈정 보〉

- 2021년과 2022년 설문조사 대상자는 같으며, 무응답과 중복응답은 없음.
- 2021년 실무자의 절반은 여성임.
- 각 설문조사에서 '부당한 지시'의 갑질 발생 위험도를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언어'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함.

P.381 문제 15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 ① (×) (...) 가능한 <그림>의 각주에서 각 구역에 빈집이 1개씩만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철거가 가능한 빈집은 총 3개이다.

〈수정〉

- ① (×) (...) 가능한 <그림>의 각주에서 각 구역에 빈집이 1개씩만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철거가 가능한 빈집은 총 2개이다.

P.389 문제 22 [문제 해설 Step 2] 내용 수정

〈기존〉

2번째 문장 : 양육자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발생 비율 차이는 A가 5.7, B가 7, C가 6.5이다. 불면증이 우울보다 비율 차이가 컸으므로 불면증은 A가 아니다. 또한 우울은 B가 아니다. (③은 제외)

〈수정〉

2번째 문장 : 양육자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발생 비율 차이는 A가 5.7, B가 7, C가 6.5이다. 불면증이 우울보다 비율 차이가 컸으므로 불면증은 A가 아니다. 또한 우울은 B가 아니다. (⑥는 제외)